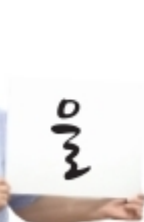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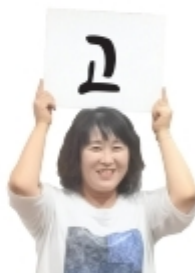




이웃

[웃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

조선시대 한양에서 원님이 새로 부임하거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고개길이라하여 '원고개'라 불리게 되었다.

”

“

원고개마을은 고도차로 인해 마을을 거닐며 대구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가 곳곳에 있어 잠깐의 순간에도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원고개마을의 대표자산인 날뽕북춤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원님이 부임할 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맞이하거나 추앙받던 원님의 순직을 추모하고자 북을 울린 것에서 유래된 춤이다. 또한 대구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성당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비산성당이 있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



| 월간 원고개



1월



1월5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발대식

2월27일



3월



3월9일

부산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 덕발골 행복마을 및 초량 이바구길





1월18일~2월8일

원고개마을 주민자력재생 세미나

2월

마을디자인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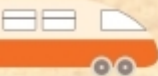
2월18일~3월11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3월22일





4월



4월6일~4월27일

마을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희망ONE고개 제1회 달빛극장

5월30일



5월23일

수원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및 화성행궁

바리스타교육

6월5일~7월24일

6월





4월8일

원고개 마음나눔 행복마당

4월25일~5월30일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5월

5월11일~6월22일

주민참여 마을학당



5월11일~6월22일

역사학교 마을탐방단



희망ONE고개 제2회 달빛극장

6월30일



6월15일

창원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 창동 예술촌 및 굿데이뮤지엄



복합 커뮤니티센터

대구시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2017년 4월 건립된 원고개마을의 제1호 커뮤니티센터로서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진 곳이다. 지상 2층의 규모로 1층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북카페가 들어설 예정이며, 2층은 원고개마을 현장지원센터 사무실과 테라스가 마련되어 마을의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이 곳은 원고개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함께 꾸며가고 만들어나가는 곳이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쉬어가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함께 이을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이다.





북함커뮤니티센터 뒤 벽화

소소한 원고개마을 이야기



비산성당 옆 조명이 들어오는 멋진 벽화가 완성되었답니다.

통장님 한 분이 벽화 사진을 찍어서 통우회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계기로 치맥파티 번개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입이기도 하고 마을의 손발이 되기도 하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치맥파티는 동장님, 비산성당 식구들에 이어 비산성당 디모테오 신부님까지 합류하는 자리가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신부님께서 최근 집필하신 저서(“밥보다 사람이”)도 한권씩 선물받고, 갑자기 저자 사인회장이 되어버렸다는 후문입니다. 비산성당 옆 조명이 어우러진 벽화 길에 한 번 둘러보세요. 뜻밖의 호사를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봉초등학교 옆 비봉문구사, 처음으로 저녁시간 지나다보니 기분 좋은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산 살에 촘촘히 LED 조명을 걸어두었네요. 낮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산 조명에 사장님의 통심이 느껴집니다. 저녁시간 비봉초 앞을 지나가신다면 잊지 마시고 눈길 한번 올려보세요.

사회적경제 행사



비산성당 벽화



2017년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행사가 우리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사회적 경제, 지역과 공동체하다!” 7월 3일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과 지역문화 축제를 우리마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곳에 청소, 방역, 수리 등 나눔활동을 하고 마을벽화작업 및 키트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 저녁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다채로운 공연도 관람하였습니다.





비산1동 길 곳곳은 아직도 노란색 나트륨 등이 많아 밤길이 어둡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나트륨 등을 전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마을 밤길이 좀 더 밝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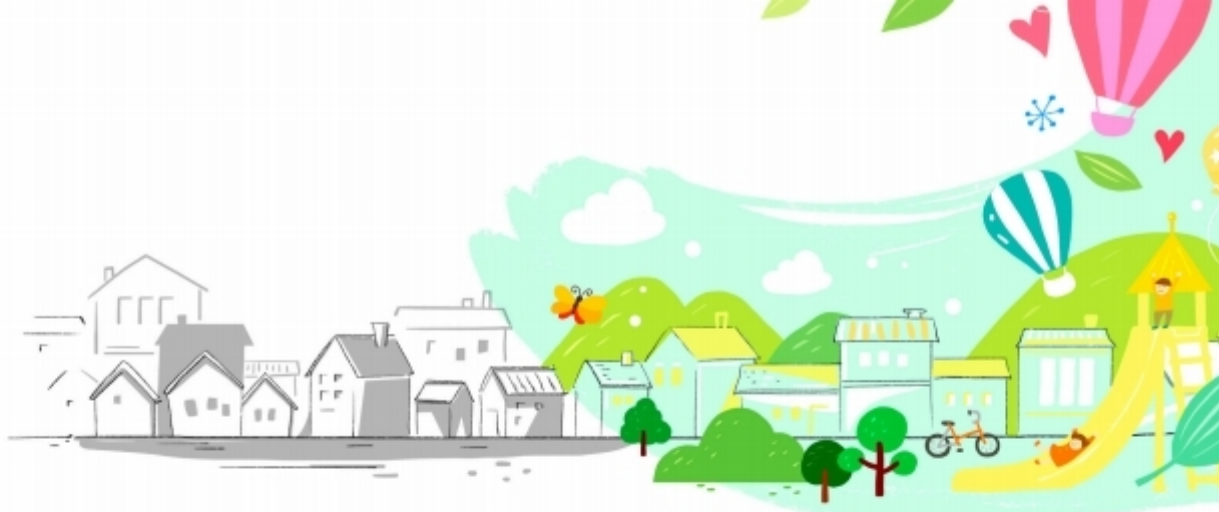


비산1동 경로잔치가 6월 17일 북비산 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연례 행사이기는 하나 평년보다는 큰 규모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자그마치 500인분의 식사와 다과, 수육 등을 준비했는데 음식 대접 시작하고 20~30분 지나자 그 많은 음식이 거의 동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자치위원장님의 열정적인 목소리, '아, 모자라면 수육 더 해야지! 지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대접하라고!!'. 내년에도 풍성한 잔치를 기약해 봅니다.



주민센터 맞은편 밋밋하고 답답하던 철판 벽에 벽화가 조성중입니다. 담장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온 나무와 벽화의 나무가 만나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지는 인상적인 벽화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 곳에 원래 자리하던 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배려심 있는 벽화라고 할까요. 주민센터 앞을 지나실 때 한 번 둘러보세요.





6월 21일자 영남일보에 우리마을 양종석 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비산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맞은 편, 얼마전 살구색 벽으로 도색을 한 집이 있는데요, 바로 회장님 댁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벽화도 그려지고 마을이 변모하고 있는데 길가의 집 벽면을 허술한 상태로 둘 수 없어서 어마어마한(?) 자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와 어울리는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기꺼워 공간을 내어 주셔서 그곳에도 조만간 예쁜 벽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큰 폭우라고 할 것도 없는 6월 25일 소나기에 마을 이곳저곳에서 비로 인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2통과 5통에는 하수관 공사를 하다가 부직포를 덮어둔 것 때문에 물이 무릎까지 차는 침수가 있었고, 19통은 하수관이 문제가 있어 하수가 펄펄 역류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의 빠른 발 이승기 주임님까지 출동하시고, 큰 피해없이 금방 복구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마을활동가의 일기장

본녀일기

유난히 바빴던 하루를 마치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은 오지 않고 지나간 일들이 새록새록 스치고 지나간다
안양국토부에 예산심사를 가는데 주민대표로 갈 사람이 없다고 좀 가 달라는
동장님 말씀에 발을 딛게 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이 뭔지 마을활동가가 뭔지 생소한 일이지만....
우짜다보니 눈에 빠진 것 마냥 혹 들어와버렸네.....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참여하면서 도시재생을 많이 알게되었지만
내가 아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게,
원현파출소 리모델링, 원고개다락방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고
북카페를 할 예정이라 바리스타교육을 주민들과 참여하고
커피도 만들어보고 여러 카페를 다니면서 맛도 보고 평가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 참여를 하면서 이웃들과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을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분명한데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또 다른 숙제가 생겨나고.....
하나를 마무리 하고나면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재생은 어두운 가로등 환하게 해주고
쓰레기가 넘치는 거리는 깨끗하게 바꾸고
큰 것을 원하는게 아니라 소소한 작은 변화로
살기좋은 마을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란 것을....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 갈 것인지 나에게 물어본다
잠도 오지않고 머릿속은 복잡하고 어느덧 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린다....
내일도, 아니 오늘도 파이팅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잠이 든다.



생활꿀팁



이것만 알면 악취제거 손쉽게

쓰레기가 한 번에 다 차지 않은 쓰레기통두, 냄새 나지 않는 쓰레기만 버린다면 상관 없겠지만 어디 그러나요~ 과자든 음식물이든 결국 냄새때문에 꽂꽂 싸매두는데 그래도 냄새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신문지를 사용하세요! 물에 적신 신문지를 봉투 위에 올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뛰어난 탈취효과를 보인다고요!



이젠 수세미로 닦지마세요, 신문지로 닦으세요

프라이팬에 음식물이 눌었을때 수세미로 박박.. 팔은 아프고 바닥 코팅은 다 긁히고.. 그러다 또 사고~ 이젠 신문지로 편하게 닦으세요! 팬을 볼 위에 올려 달군 다음 소금을 한 움큼 넣고 신문지로 닦으면 음식물이 싹~ 탈취효과를 줍니다~



막힌 변기 뚫기

막힌 변기에 삼푸를 두 번 정도 찌서 넣고 2-30분 후 변기 물을 내려 주면 끝!



밀폐용기, 물통을 새 것처럼

세월의 흔적 때문에 도저히 세제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배어 있는 악취.. 싼뜨물을 하루동안 넣어뒀다 다음날 닦으면 배인 냄새와 얼룩을 싹 없애준대요~



10년 된 옷도 어제 산 새 옷처럼~

자주 입어서 더러워지기 쉬운 셔츠 깃이나 소매에 삼푸를 바르고 세탁하면 새 옷처럼 재탄생! 삼푸에 들어있는 지방분해 성분이 찌든때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생년월일로 보는 2017년 운세



월

1월 예상대로
2월 인생에서 최고로
3월 생일날에
4월 일 년에 한번 짝은
5월 갑자기
6월 쓸데없이
7월 뭐든 잘되고
8월 월 하든 간에
9월 지겨울만큼
10월 생각 이상으로
11월 올해에는
12월 바라는대로



일

1일 노잼된다
2일 사랑받는다
3일 키가 크다
4일 살이 빠진다
5일 복권 당첨된다
6일 몸이 좋아진다
7일 사랑스러워진다
8일 귀여워진다
9일 젊어진다
10일 고백받는다
11일 칭찬받는다
12일 부자가 된다
13일 똥똥해진다
14일 행운을 얻는다
15일 애인이 생긴다
16일 술술 풀린다
17일 돈을 준다
18일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
19일 행복해진다
20일 이사를 간다
21일 사랑에 빠진다
22일 스타가 된다
23일 능력을 인정받는다
24일 꿈을 이룬다
25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다
26일 먹음복이 생긴다
27일 부자가 된다
28일 유머러스해진다
29일 예뻐진다
30일 사업이 성공한다
31일 근심이 사라진다



희망 원(ONE)고개마을 소식지